

우리들의 학교생활 이야기

공부는 왜 할까요?



공부는 왜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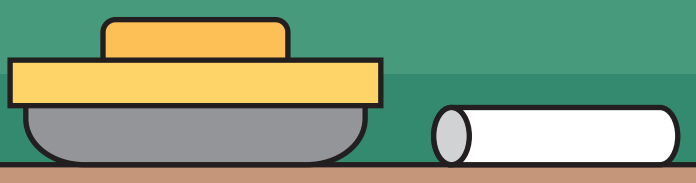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목이 있습니다. 배워서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력을 기르게 하는 교과목도 있습니다. 좀 더 흥미롭고 쉬운 교과목도 있지만, 재미없고 어려운 교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목을 왜 공부하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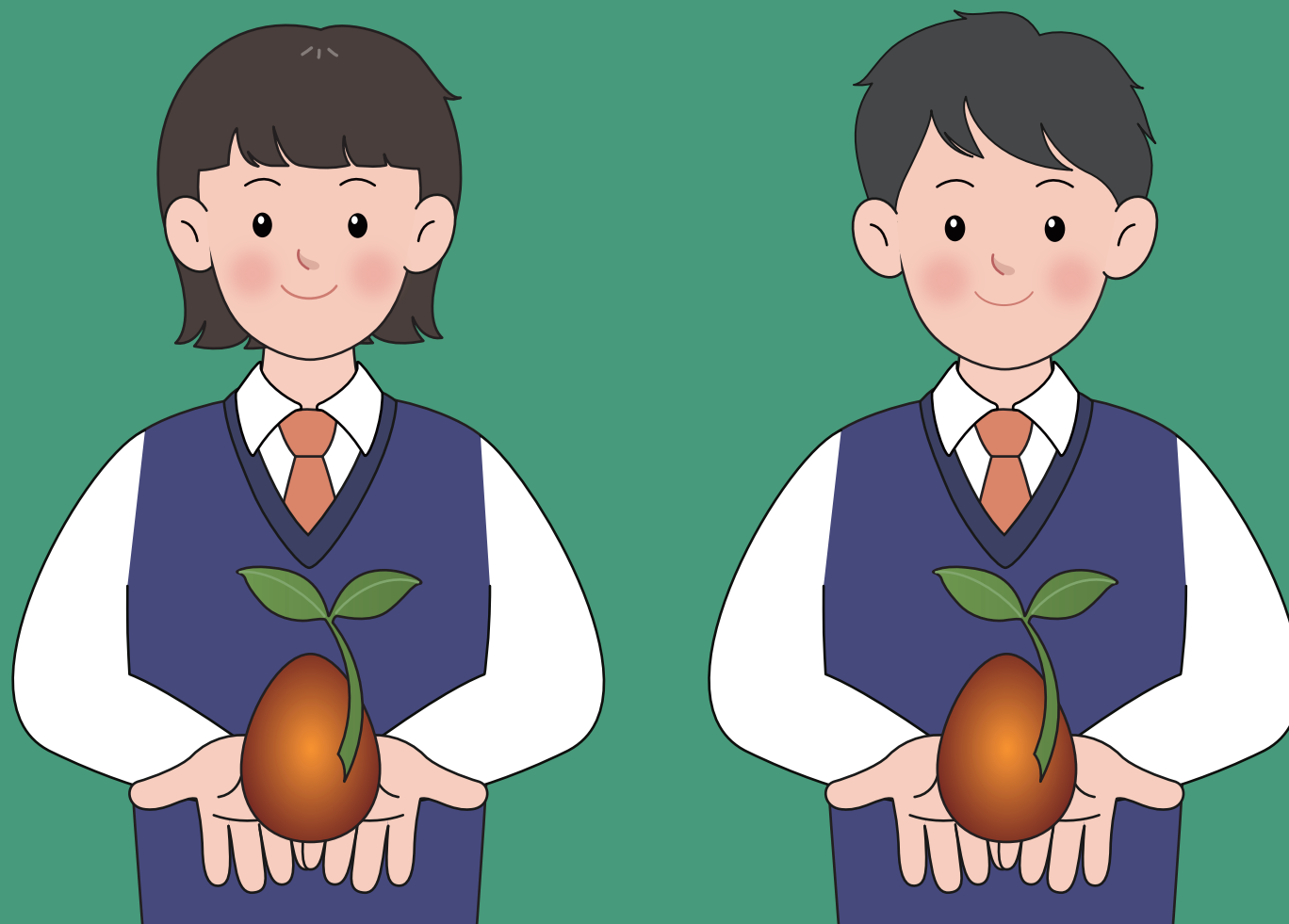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국어, 수학, 과학, 체육 등 여러 가지 기초 교과를 배웠습니다. 한 사람이 사회에서 타인과 건강하게 어울려져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습 내용을 배우는 시기였지요. 중학교에서의 공부는 초등학교에서와 같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과목마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가능성’이라는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나의 마음과 뇌 속의 씨앗을 자라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의 씨앗이 어떤 모양의 나무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양한 배움과 학습,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은 내가 되고 싶은 나무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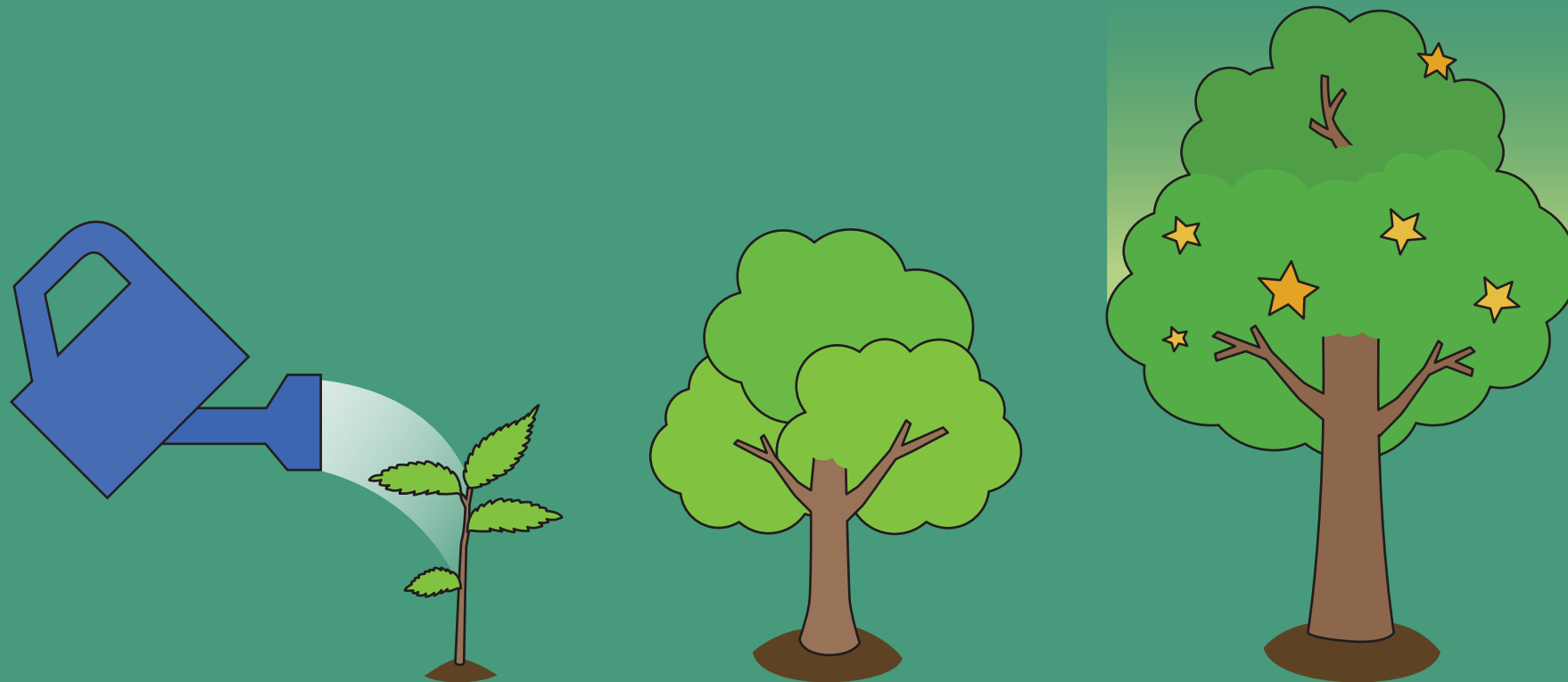


나무로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것



공부가 때로는 지루할 수 있고,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비교되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하는 일에 전혀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작은 씨앗이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 거름과 같은 다양한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잠재력'이란 씨앗이 '우리 자신'이라는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목을 배우고 학습해야 합니다.**

나무로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것



공부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 지루함을 이겨내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은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거름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 '잠재력'이란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줄기가 뻗어 나만의 멋지고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순간에 자라는 나무는 없듯이 **우리들도 매일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익히다 보면, 나만의 멋지고 개성 있는 나무를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는데도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열심히 하고 싶는데도 집중하는 것이 어렵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고 막막하다면, **도움을 구해보세요.** 나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이나 방향을 찾는 것 또한 나만의 나무를 키워내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건강 상담이 가능한 곳이 어디에 있나요?



학교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 ☒ 위 클래스(Wee Class)



학교 외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 ☒ 교육청 위 센터(Wee Center)
- ☒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 ☒ 지역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전화나 문자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 ☒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들어줄개'(1661-5004),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상다미샘

